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보건행정경영학과	이름	임XX
파견국가	체코	파견도시	올로모우츠(Olomouc)
파견대학	Palacky University Olomouc	파견기간	2023.09.08~2024.06.30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올로모우츠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로부터 기차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소도시입니다. 체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설명할 수 있을만큼 건물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올로모우츠는 학생들의 도시라고 할 만큼 학생들이 많고, 마트나 우체국 등에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Palacky University는 올로모우츠 시내 곳곳에 단과대학들이 퍼져있고, 건물마다 특성도 다릅니다. 많은 교환학생들이 속해있는 예술대학은 체코 특유의 분위기가 묻어나있고 제가 속해있던 과학대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많은 아시안 학생들이 있으며 한국어학과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적응하기 쉬웠고, 많은 학생들과 비교적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2023-1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1. Czech for foreigners 간단한 체코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 숫자나 몇 가지 필수단어를 알아두는데 좋았다. 2. Research Methodology in Health Science 전공 관련 과목으로 에세이, 발표 등을 영어로 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교수님이 열정적이심. 3. Finance and Financial Management 토론 수업을 주로 진행하신다. 경제에 대한 외국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 좋았고, 경제이슈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4. Conversation in English1

	나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체코학생들이어서 처음엔 조금 걱정했는데, 주제를 정하고 1시간동안 각 조가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이었다. 친구들 반응이 좋고 같은 조원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즐거운 수업이었다. 5. Sustainable Development 가장 어려웠던 수업. 교수님이 내신 책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매 수업마다 8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대한 내용을 각 조가 발표해야했다. 환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고, 전공자가 아닌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시험 난이도가 정말 높았다.
2024-1학기 수업	1. Project Management in Globalized World 각 조마다 발표를 해야했고,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다. 2. Communication Skills 참여형 수업으로 20분 정도 워밍업 놀이를 한 다음 간단한 수업을 진행하셨고, 역시 기말에 발표가 있었다. 가장 즐거웠던 수업. 3. Evalu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평가를 발표하는 과제와 시험이 있다. 어려웠으나 같은 조원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마칠 수 있었다. 4. Development Assistance 발표 2번, 에세이, 시험이 있었고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다. 그러나 교수님이 열정적이시고 토론을 통해 다른 나라 친구들의 국제적 상황이나 나라간 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수업이었다.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 ESN이라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개강 전 일주일동안 웰컴파티, speed-friending, 펍투어 등을 진행하고 개강 후에도 national presentation, pub quiz, 주변도시여행 등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됩니다. 인스타그램에 @ESN_Olomouc를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코에 가기 전 버디를 구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버디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소개받았고, 한국에서 온 택배를 받으러 우체국에 가거나, 트램 정기권을 만들 때도 버디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 도움을 청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버디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날씨는 겨울에는 한국보다 덜 춥고, 여름에는 한국보다 덜 덥습니다. 다만 기숙사에 난방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전기장판은 필수였으며, 저는 롱패딩은 가져가지 않았지만 가져갔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조하기 때문에 목도리나 가습기를 켜야합니다. 1~2월에는 비나 우박이 많이 왔으며, 5월 후반~6월 초에도 거센 비나 우박이 많이 내리는 편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습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이 많이 쎄서 선글라스를 써야하고, 저녁에는 추워서 후드집업 등을 입어야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기숙사 주변에 경찰서가 있고 (엔벨로파 기숙사 기준) 길에 노숙자가 몇 있긴 하지만 위험한 상황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인종차별 또한 10개월 중 겪어본 적 없으며, 아이들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벽 3시에 혼자 기차역까지 걸어가거나 친구들이랑 늦게 기숙사에 돌아올때도 안전했습니다! 기숙사도 들어오기 위해선 학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인으로부터의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는 시내까지 도보 15분이지만 3인실인 엔벨로파와 시내까지 트램타고 20분이지만 1인실or2인실인 네제딘이 있었는데, 저는 엔펠로파를 1년동안 사용했습니다. 엔벨로파는 공용공간에 화장실, 냉장고, 옷장이 있고 3인실이 2개 있습니다. 장점은 외국인 친구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고, 웬만한 곳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트램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 트램 막차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단점은 3인실이라 조금 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한 층에 부엌이 하나라는 점, 룸메이트와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인은 네제딘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친해지기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 외국인친구들과 친해지고 영어를 늘리는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였고, 운좋게도 두개 학기의 룸메이트 친구들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라 친구들의 집에도 놀러가고 같이 여행도 하는 등 더할나위 없이 엔벨로파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또한 3인실을 2명이서 사용했기에 오히려 넓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와 안맞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도 있었고, 심지어 방을 옮기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제가 엔벨로파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엌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한층에 부엌이 하나밖에 없는데 인덕션이 4개밖에 없어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요리를 하고 싶은 시간에 못하고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클리닝 레이디가 안계시기 때문에 부엌이 정말 더러워서 다른 친구들과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시켜야했습니다. 하지만 부엌문제 빼면 정말 완벽한 기숙사입니다! 통금시간도 없고, 가끔 스페인친구들이 파티를 열어서 시끄럽긴 하나 오전 12시 이후는 조용한 편입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과일이나 채소, 고기 등 마트물가가 싼편이기 때문에 일주일치 식량을 사도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통 고기를 구워먹거나 파스타를 직접 요리해먹었고, 한인마트가 2곳 정도 있기 때문에 라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식당이 있긴 하지만 음식이 너무 별로라는 말을 들어서 이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요리하기 귀찮을 때는 'Bolt Food'를 통해 배달을 시켜먹기도 하고, 주변에 식당도 많아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는 체코식당, 일식당, 베트남식당 등 외식도 자주 한 편입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제가 속했던 과학대는 엔벨로파 기숙사 바로 앞에 있어서 도보 1분 거리로 접근성이 정말 좋았고, 시내까지도 도보로 15분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올로모우츠에서는 주로 걸어다녔습니다. 주변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걸어다니는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다른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주로 프라하나 비엔나, 카토비체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비엔나나 카토비체 등은 플릭스버스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프라하도 버스로 갈 수 있지만 4시간 반정도로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에 저는 주로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국제학생증이 있으면 할인도 되기 때문에 올로모우츠에서 프라하까지는 보통 2시간 반정도 걸리고, 비용은 만원정도였습니다. 또한 체코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 브르노, 3번째로 큰 도시인 오스트라바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이고 비용은 7000원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50만원	에미레이트항공 왕복 (인천-프라하)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약 100만원	보험은 반드시 PVZP라고 하는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숙소	약 180만원	매달 약 18만원(3인실)
식비	약 500만원	
교통비	X	트램 거의 이용 X
책값	X	필요한 책은 도서관 대여 가능
기타1	약 500만원	식비 외 생활비
기타2	약 700만원	여행비
합계	약 213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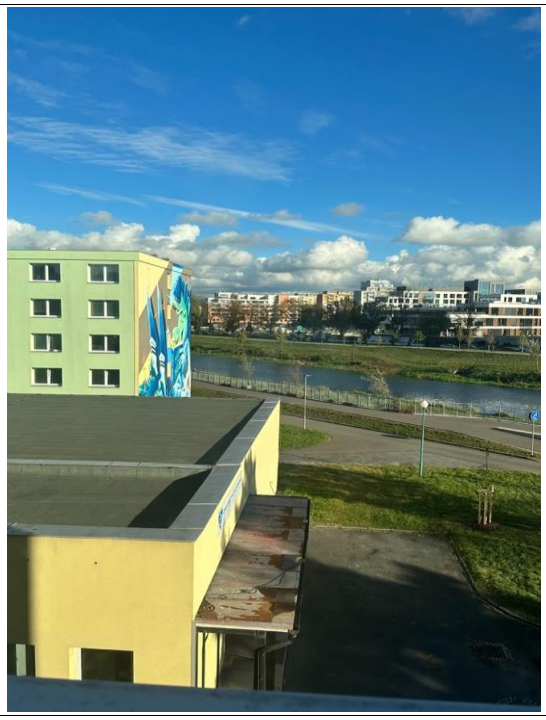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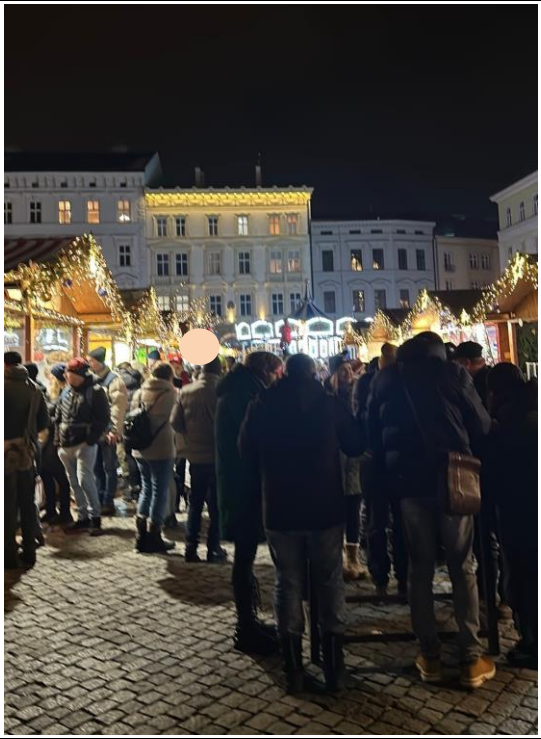
출국 전 가장 중요한 사안은 역시 비자입니다. 저 역시 비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나, 중요한 것은 비자에 필요한 서류가 완료되는 그 즉시 비자를 신청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자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올로모우츠의 경우, 프라하공항에 도착한다면 공항에서 중앙역으로 이동한 뒤 다시 기차를 타고 2시간 반을 가야하지만, 비엔나공항에 도착한다면 플릭스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바로 올로모우츠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서 프라하로 갔지만, 미리 알았으면 비엔나공항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버스가 별로 없고 시간 텀이 길기 때문에 플릭스버스에서 미리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또한, 저는 국제학생증을 한국에서 미리 만들고 갔는데, 이 때문에 팔라츠키 학교에서 국제학생증을 만들 수 없고 국제학생증, 팔라츠키 대학교 학생증 두 개를 들고 다녀야해 불편했습니다. 국제학생증은 파견교에 가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옷은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며, 블럭국/전기장판(2학기 파견시)/멀티탭/감기약, 소화제 등 각종 감기약은 필수로 가져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환학생 초반에는 버디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출국 전 버디와 많은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교환학생 생활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추억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평생을 살아온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친구가 되고, 얘기를 나누고, 추억을 만든 경험은 제게 여러 깨달음을 주었고,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식견이 넓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일하거나 공모전을 나가거나 하는 대단한 경험은 하지 못했으나, 교환학생 생활 그 자체만으로 저에게는 이미 특별한 경험입니다. 무엇보다 1년간의 해외생활을 통해, 제가 해외생활에 잘 맞는 사람인지 확인해볼 수 있게 되었고, 향후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해외인턴 등 여러 길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은 대학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힘들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낯선 곳에서 친구들을 만들고, 혼자 여행을 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하고, 지구 반대편의 친구들과 다음 만남을 기약하던 교환학생 생활의 경험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Welcome Party		National presentation

		
기숙사 방에서 본 풍경		룸메이트들과 폴란드여행
		
올로모우츠의 크리스마스 마켓		올로모우츠 시내 풍경